

‘전쟁 모성’이 생산한 여성 의식
- 박완서의 장편소설 『나목』(1970),
『그 산이 정말 거기 있었을까』(1995),
『그 남자네 집』(2004)을 중심으로-

한 경 희*

요약

이 논문은 계보학적 페미니즘 연구의 일환으로서, 본질적 여성성의 유무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기존 여성성 논의와 거리를 두고 '여성성은 어떻게 구성되어왔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고자 한다. 이를 위해 시대적 맥락 속에서 여성성이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그 일례를 보여주는 박완서의 전쟁 체험 소설들을 연구 대상으로 다루고자 한다.

박완서의 전쟁 체험 소설들 속 딸들은 전쟁으로 인해 가족이 무너지게 되면서 배고픔을 스스로 해결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에 처한다. 이에 배고픔에 대해 처음으로 두려움을 느낀 딸들은 경제 활동에 나선다. 이들은 배고픔에 굴복해 경제 활동에 나선다는 데 대해 즉 자신이 물질에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에 대해 수치심을 느낀다. 이러한 수치심은 자신이 물질에 대해 강한 이기적인 욕망을 가지고 있는 비도덕적인 사람이고 느끼도록 만든다. 또한 자신처럼 전쟁으로 가장을 잃어 가족의 생계를 잇기 위해서라면 어떤 수단도 불사하는 '전쟁 모성'에 대해서도 수치와 혐오의 감정을 느끼도록 만든다.

딸들은 자신으로 하여금 먹을 것을 구하도록 종용하는 생활환경으로부

*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수료

터 벗어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딸들은 자기 대신 먹을 것을 구해다줄 수 있는 남자 즉 경제력 있는 남자와 결혼한다. 이 선택으로 딸들은 가난이 주는 수치심으로부터 벗어나나 또 다른 도덕적 수치심, 자신의 성을 자원으로 활용하여 부를 얻었다는 수치심을 갖는다. 이때의 수치심은 딸들의 중산층 여성으로서의 정체성의 핵을 이루게 된다. 아직 경제적 안정을 얻지 못한 가난한 여성들을 아직 거래되지 못한 혹은 거래에 실패한 여성들로 봄으로써 계층적 우월감을 얻는 것이다.

주제어: 박완서, 여성성, 수치심, 페미니즘 계보학, 중산층

목차

1. 여성성의 계보학적 이해를 위하여
2. '자기보전'에 대한 수치심
3. '전쟁 모성'에 대한 딸의 혐오
4. '결혼'이라는 가난으로부터의 도피처
5. 결론

1. 여성성의 계보학적 이해를 위하여

한국 문학 연구에서 여성성에 관한 질문은 1990년대와 2010년대를 기점으로 달라지는 양상을 보인다. 페미니즘 비평이 본격적으로 활성화되기 시작한 1990년대에는 '여성성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기저에 두고 한국 문학 작품에 나타난 여성성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다. '여성성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서 여성성은 남성과 비교했을 때 여성만이 갖는 배타적인 특수성으로 이해된다. 그리고 여성 고유의 특수성은 남성중심적인 것의 대안으로 의미화되어 남성성보다 윤리적 측면에서 우월한 것으로 위치지어진다. 특히 여성이 생명을 생산

하고 돌보는 실질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에서 여성성은 쉽게 ‘생명 존중’ 혹은 ‘생명력’과 동일한 것으로 얘기된다. 이 지점에서 여성은 어머니로 상정되면서 여성성에 대한 이해가 기존의 가부장적 여성성에 대한 이해와 그 내용이 별반 다르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 시기 ‘여성성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이 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앞세운 ‘자아의 정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던 시대적 분위기 때문이기도 했다. 앞으로 보다 자세한 분석이 필요하겠지만 더 정확히는 후자의 질문을 위해 전자의 질문이 제기되었다고도 볼 수 있다. 이 시기의 문학·문화 비평에서 ‘나는 누구인가’와 같은 자아탐색은 자주 ‘여성의 정체성 찾기’라는 주제를 표방함으로써 이루어지고는 했다. ‘억압당하는 여성’이라는 페미니즘의 기본적인 전제는 획일적인 사회에 의해 개별성을 억압당함으로써 자아실현이 가로막힌 개인에게 정치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차용되었던 것이다.¹⁾ 그 결과 1990년대 여성성 연구에서는 여성 고유의 특수성으로 이해되는, 자식에 대한 사랑으로 희생을 마다하는 생명력 강한 어머니와 자기 계발을 통해 자아실현을 꿈꾸는 자유주의적 개인으로서의 여성이 묘하게 착종되어 주체적 여성의 이상적인 형상으로 나타나는 모순을 낳기도 하였다.

2010년대를 전후로 한국 문학 연구에서 여성성에 대한 질문은 ‘여성성은 존재하는가’로 바뀐다. 1990년대에는 여성성의 보편적 특성을 증명하고자 했다면, 2010년대를 전후해서는 보편적 여성성이란 존재하지 않음이 얘기된다. 포스트모던 페미니즘 이론을 방법론

1) 대표적인 연구로 권명아의 『박완서 : 자기상실의 ‘근대사’와 여성들의 자기찾기』(『역사비평』 제45호, 1998)를 들 수 있다. 권명아의 이 연구는 1994년에 발표된 『박완서 문학 연구 - 억척 모성의 이중성과 딸의 세계의 의미를 중심으로』(『작가세계』 제23호, 1994)와 함께 여성문학 연구의 방법론적 패러다임이 어떻게 바뀌게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기념비적 연구라고 평가할 수 있다.

으로 삼는 이러한 연구들은 여성과 남성의 이분법적 범주화를 근본적으로 문제 삼고 해체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1990년대 여성문학연구 방법론과 극단적으로 대립되는 위치에 있다고 할 수 있다.²⁾ 그런데 이와 같은 기초의 연구에서 여성성은 사회 규범의 결과물로서만 이해되는 경향이 있다. 여성성은 어떤 것을 여성성으로 규범화하여 '명명'하는 상징 권력에 의해서만 생산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그 결과 여성성이란 상징 권력 구도의 재배치를 통해 해체될 수 있는, 실체 없는 '허구'에 불과한 것으로 여겨진다. 그리고 이러한 전제 하에서 여성성이 허구임을 의식적으로 간과할 수만 있다면 여성성의 압박을 거부할 수 있는 것으로 여성해방의 비전을 제시하기도 한다. 다시 말해 여성이 과단성을 가지고 허구를 벗어나기로 결심한다면 자신에게 체현되어있는 여성성을 벗어던질 수 있다고 쉽게 얘기하는 것이다.

본고 역시 기본적으로 포스트모던 페미니즘 이론을 방법론으로 채택하여 전개된 연구들과 같이 젠더이론론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취한다. 그러나 '여성성의 해체'를 위해서는 성의 이분법적 범주화가 허구에 불과하다고 원론적으로 비판하기에 앞서 여성성이 어떻게 구성되어왔는지 그 과정을 역사적으로 고찰해보는 작업이 요청된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회적·역사적 맥락 속에서 여성성을 고찰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³⁾ 본고는 '여성성은 어떻게 형성되어 왔는가'라는 질문을 통해 삶의 물리적 현실이 어떻게 여성성을 주조하고 변모시켜나갔는지를 알아보려 한다. 이 질문은

2) 대표적인 연구로 김윤정, 『박완서 소설의 젠더 의식 연구 : 수행성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2.

3) 주디스 버틀러에 따르면 계보학적 비평은 문화 속에서 상상과 인식이 가능한 젠더 지형의 가능성들을 미리 전제하고 선취하는 젠더에 대한 담론적 분석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특히 필요하다.(주디스 버틀러, 조현준 옮김, 『젠더 트러블』, 문학동네, 2008, 101면.)

여성성이 시대의 변화에 따라 생성되고 변화하는 사회적 구성물이라고 본다는 점에서 포스트페미니즘과 마찬가지로 본질로서의 여성성을 부정하는 입장을 취하나, 상징적 층위보다 물질적 층위가 어떻게 여성성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지 보고자 한다는 점에서 포스트페미니즘의 주류적 입장과 다르다.

본고는 그 시도의 일환으로서 한국전쟁을 배경으로 하는 박완서의 소설, 그 중에서도 오빠의 총상 혹은 죽음 이후를 시간적 배경으로 하는 박완서의 소설들 『나무』(1970), 『그 산이 정말 거기에 있었을까』(1995), 『그 남자네 집』(2004)을 연구의 대상으로 삼고자 한다. 많은 연구자들이 지적하고 있듯이, 박완서의 소설에서 한국전쟁기는 무엇보다 가난의 시기로 묘사된다는 특징을 지닌다. 본고는 박완서의 소설에서 한국전쟁기가 가난의 시기로 묘사되기 시작한 것은 집안의 가장이라고 할 수 있는 오빠의 총상 혹은 오빠의 죽음 이후의 시기부터이며, 작가가 당시의 자신을 투영하여 만든 작중 인물인 딸들이 이 시기를 겪어내면서 ‘여성’이라는 자의식을 형성하고 있음에 주목한다.

그리고 이 소설들이 작가의 실제 체험을 바탕으로 구성된 이야기라는 점을 근거로 삼아, 한국전쟁이 당시 여성들로 하여금 어떠한 욕망과 결핍으로 이루어진 내면 구조를 가지게 했는지 짐작해보고자 한다. 여성성이 생물학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시대와 지역, 문화에 따라 다르게 구성되는 것임을 받아들일 때, 이를 한국전쟁이 주도한 여성성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박완서의 소설들만을 분석 대상으로 삼음에도 불구하고 본고가 한국전쟁으로부터 주도된 여성성의 가능성에 대해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전후 여성사를 공부하면서 접했던 여러 여성들의 생애구술사와 박완서의 소설이 모종의 공통점을 띠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⁴⁾ 이때의 공통점은 전쟁에 의

4) 윤택림, 『한국의 모성』, 지식마당, 2001; 김귀옥, 『한국전쟁과 여성: 1950년

해 20-30대의 젊은 여성들의 생애가 비슷한 궤적을 그리며 흘러갔다는 단순한 외면상의 공통점이 아니다. 공통점은 오히려 서로 다른 인생 경로를 밟았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여성들의 내면 상태, 소위 ‘멘탈리티’라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 유사성을 띤다는 데서 발견되었다. 이러한 ‘멘탈리티’를 파악하는 작업은 한국전쟁이 한국 사회의 근대화에서 실질적인 시작점이었다는 점에서 한국의 근대적 여성성의 형성 과정을 이해하도록 해줄 것이다.

박완서의 한국전쟁기 소설들 속에서 어떻게 여성성이 형상화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작업은 한국전쟁이 주조한 여성성의 형성 과정의 일단을 살펴보도록 해줌과 동시에 작가의 여성성에 대한 이해에 대해서도 함께 논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이다. 작가에게 있어 무의식에 각인되다시피 한 전쟁기의 고통은 이후 가난에서 물리적으로 벗어났다고 얘기할 수 있는 시간들에까지도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이러한 가난의 고통에 대한 기억을 여성성에 대한 혐오의 감정을 통해 형상화하는 면모를 보이기도 한다.⁵⁾ 최근 연구들이 밝히고 있는 바처럼 1970-80년대 사회의 속물주의에 대한 박완서의 비판의 뿌리는 한국전쟁 체험에 있다고 할 수 있다.⁶⁾ 보고는 작가가 전

대 한국 여성의 삶, 정진성·안진 외, 『한국현대여성사』, 한울아카데미, 2004; 박혜경, 『전후 경제개발의 영웅서사를 넘어서: 1935년 개성 출생 여성 사례』, 이재경·유철인·나성은 외, 『조국 근대화의 젠더정치』, 아르케, 2015; 나성은, 『1920년대 출생 여성의 생애를 통해 본 재혼과 모성』, 위의 책.

- 5) 한경희, 『자본주의를 비판하며 자본주의와 교섭하기』, 『페미니즘연구』 제16권 2호, 2016.
- 6) 이선미, 『세계화와 탈냉전에 대응하는 소설의 형식-기억으로 발언하기-1990년대 박완서 자전소설의 의미 연구』, 『상허학보』 제12호, 2004; 송은영, 『문밖의식』으로 바라본 도시화-박완서 문학과 서울, 『여성문학연구』 제25호, 2011; 이선미, 『박완서 소설과 비평-공감과 해석의 논리』, 『여성문학연구』 제25호, 2011; 오자은, 『1980년대 박완서 단편 소설에 나타난 중산층의 존재방식과 윤리』, 『민족문화사연구』 제50호, 2012; 이정숙, 『1970년대 한국 소설에 나타난 가난의 정동화』,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4; 차미령, 『생존과 수치』, 『한국현대문학연구』 제47호, 2015; 신샛별, 『박완서 소설에 나타난 ‘먹는 인간’

쟁을 의미화하는 데 있어 여성성에 대한 이해가 개입되고 있음을 볼 때, 그 ‘뿌리’라고 하는 것을 더 정확히 파악하려면 작가의 한국전쟁기에 대한 젠더적 이해에 대한 정리가 반드시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정리하자면 본고는 두 가지 목표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하나는 한국 여성성의 계보학적 이해를 위하여 박완서의 소설들을 통해 한국전쟁이 어떠한 여성성을 주조해냈는가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박완서가 자신이 파악한 여성성에 대해 어떠한 입장을 취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후자의 작업은 단순히 작가의 의식 세계를 탐구한다는 데 의의를 두기보다는, 여성이라는 자의식을 가진 주체가 어떻게 탄생하는지 그 과정을 가늠하게 해주는 한 사례를 탐구한다는 데 의의를 두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고는 박완서의 소설이 아무리 자전적 체험에 기반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어떠한 경우에도 실제 사실에 충실한 기록으로 취급하지 않도록 유의하고자 한다. 박완서의 소설들은 박완서가 자신의 한국전쟁 체험을 허구적인 이야기로서 재구조화한 것임을, 이 재구조화 과정에는 자신의 생애를 일정한 방향으로 평가하고자 하는 작가의 현재적 이해가 개입되어 있기 마련임을 주의하고자 한다. 이러한 본고의 태도는 박완서의 전쟁 체험 소설이 여성들의 한국전쟁 경험을 사실적으로 ‘보여주는’ 사적(史的) 텍스트로서 문학사적 가치를 일차적으로 확보했다는 사실에 반하는 것일 수도 있다. 그러나 본고는 이러한 태도가 ‘시대’와 ‘작가 개인’ 그리고 ‘소설’이라는 다층적 관계를 탐구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의 의미: 초기 장편소설을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5 등.

2. '자기보전'에 대한 수치심

각 작품 별로 출간 시기는 꽤 격차가 있으나,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1992)와 『그 산이 정말 거기 있었을까』(1995) 그리고 『그 남자네 집』(2004)은, 제목 속 '그'라는 단어가 과거의 기억을 회상하고 있음을 알려주듯이 자전적 경험을 바탕으로 씌어진 소설들로, 세 소설들의 출간 순서에 따라 작가의 생애가 시간 순서대로 펼쳐지고 있다. 1992년에 출간된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1992)는 1930년대 후반 미취학 아동인 '나'가 '신여성'이 되기 위해 엄마 손에 이끌려 개성에서 서울의 빈민촌인 현저동으로 이사를 왔던 일에서부터 1950년 한국전쟁이 발발하였으나 오빠의 총상으로 피난을 포기하고 서울에 남아 그 이듬해 겨울 인공치하에 있기까지의 일들을 다루고 있다. 1995년에 출간된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1992)의 후속작 『그 산이 정말 거기에 있었을까』(1995)는 1951년 1월 피난을 가지 못한 채 현저동에서 인공기의 세상을 맞고, 서울이 수복된 그 해 여름 결국 오빠가 죽게 되었음을 전반부에서 얘기한다. 그리고 후반부에서는 오빠의 죽음 이후 2년간 가족의 생계를 꾸리기 위해 올케와 '나'가 어떤 일들을 했는지 그리고 1953년 '나'가 어떻게 그 책임을 벗게 되었는지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작가의 데뷔작인 『나무』(1970)은 1951년에서 1953년에 이르기까지의 작가의 PX 걸로서의 경험을 토대로 쓰여진 소설이다.) 2004년에 출간된 『그 남자네 집』(2004)은 PX 걸로 근무하던 시절 로맨티스트 남자와의 짧은 연애와 이별, 그리고 직장 동료와의 결혼과 이를 통해 찾아가간 생활의 안정에 대해 얘기하고 있다. 이를 참고해볼 때, 우리는 박완서가 자신의 생애 서사를 다음과 같은 4개의 결절을 통해 구성하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다. 1) 개성에서 서울로의 이주, 2) 인공치하에서의 서울 생활, 3) PX 걸로서

의 생활, 4) 결혼. 한국전쟁이 어떻게 여성성을 새롭게 구성했는지 살펴보고자 하는 본고에서는 2번과 3번의 시절에 특히 주목하며 그 시절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그 산이 정말 거기 있었을까』(1995)와 『나무』(1970), 『그 남자네 집』(2004)을 주된 분석의 대상으로 삼는다.

위와 같은 자전적 소설들을 통해 박완서는 역사의 전개에 있어 “쪽정이”(『그 산이 정말 거기에 있었던가』)에 불과한 이들이 어떻게 전쟁 속에서 운 좋게 죽지 않고 목숨을 부지하여 지금에 이르게 되었는지를 얘기하고 있다. 이때 작가의 펜을 움직이는 힘에는, 작가가 스스로가 이 시절을 “벌레들의 시간”(『그 남자네 집』)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데서도 짐작할 수 있듯이 시대가 주는 엄청난 타격을 그대로 당할 수밖에 없었던 피해자로서의 억울함과 그런 자신의 무력함에 대한 수치심이 깊게 배어있다. 박완서는 이러한 감정들을 전쟁 당시의 가족 이야기를 통해 나타낸다.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1992)와 『그 산이 정말 거기 있었을까』(1995)에서 의용군으로 끌려갔다가 도망쳐 나온 오빠는 그 과정에서 정신이 무너지고 이에 더해 여타의 사정으로 총상을 당해 다리마저 못 쓰게 되는 상황에 처한다. 실질적 가장의 부재 속에서 가족의 생존에 대한 책임은 올케와 ‘나’ 두 명의 젊은 여인들에게 전적으로 맡겨진다. 이와 같은 상황이 박완서가 전쟁기를 회고하는 기본적인 구도이다. 박완서는 이 구도 하에서 발생하는 안전에 대한 불안 및 생존의 책임에 대한 부담감을 ‘배고픔’이라는 생물학적 감각을 상징적으로 사용함으로써 표현한다.

세부적인 서사에 있어 다소 차이가 있기는 하나 『그 산이 정말 거기에 있었던가』(1995)의 ‘나’,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1992)의 ‘나’ 그리고 『그 남자의 집』(2004)의 ‘나’는 모두 이와 같은 상황에 처함과 동시에 배고픔에 극도로 예민해지는 인물들이다.

이중 배고픔이라고 하는 생물학적 감각에 대해 가장 많은 천착을 보이고 있는 작품이 『그 산이 정말 거기에 있었을까』(1995)이다. 『그 산이 정말 거기에 있었을까』(1995)의 ‘나’에게 있어 자신 및 가족의 안전이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위기감은 당장 내일 먹을 것이 없다는 당면한 현실을 의식함으로써 증폭되며 배고픔이라는 구체적인 몸의 신호로서 나타난다. 처음으로 배고픔을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 ‘나’는 배고픔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 비로소 알게 된다. 이로 인해 “오로지 배고픈 것만이 진실이고 그 밖의 것은 모조리 엄살이요 가짜라고 여겨질 정도로 나는 악에 받쳐 있었다.”⁷⁾는 ‘나’의 말이 발화된다. 의지할 만한 어떤 대상도 없이 오로지 자력에 의해서만 자신 및 가족의 생계를 도모해야 하는 상태로 인해 ‘나’는 그악스러워지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나’는 그악스러움의 힘으로 인공치하의 서울에서 가족의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 빈 집을 던다. 그러나 ‘나’는 “배고픈 것만이 진실”임을 인정하면서도 자신이 ‘배고픔’에 구속을 받는다는 사실 다시 말해 물질에 의존해야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수긍하지는 못하며 이로써 수치심을 갖게 된다. ‘나’는 자신의 물질적 취약성에 대해 느끼는 수치심을 자신의 비도덕성에 대한 수치심이라고 해석한다. 인공치하가 끝나고 서울 수복 후 재회하게 된 친척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장면에서 ‘나’가 인간의 물질적 취약성에 대한 수치심을 어떻게 비도덕성 혹은 무규범성으로 이해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다.

노소나 남녀나 체면을 가릴 것 없는 그 게걸스러운 식욕 때문에 열두 식구가 완전히 가족의 개념을 떠나 각자 밀 빠진 위를 지닌 순전한 먹는 입으로 보였다. 그 짹짹거리고 와삭거리는 입은 남보다 더 먹기 위해 발동을 건 것처럼 사정없이 움직

7) 박완서, 『그 산이 정말 거기에 있었을까』, 세계사, 2012, 54면.

이고, 눈빛은 더 먹는 자를 용서할 수 없다는 적의로 잠시도 안정을 못 찾고 희번덕대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이걸 사람의 식구도 아니다, 짐승의 식구지. 나는 그 따위 건방진 생각도 할 수 있는 주제에, 움직이는 발동기의 피땀줄에 말려들 듯이 얼떨결에 그 무자비한 식욕에 편승했다. 그건 식욕도 아니었다. 설명되어질 수 없는 적의였다.⁸⁾

‘나’는 서울 수복 후 식구들이 모두 모여 식사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전쟁 전의 식사, “위계 질서”가 있었고 “위아래 턱이 있었고” “남녀가 유별했던” 다시 말해 “아름다운 질서”가 있었던 식사와 비교한다. ‘나’의 눈에는 “무자비한 식욕” 앞에 “가족의 개념”은 사라지고 “짐승의 식구”들만이 남아 있는 것처럼 보인다. ‘나’에게 이제 먹는다는 것은 생을 영위하기 위한 최소한의 필요조건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생을 영위하는 활동 그 자체인 것으로 여겨지면서 인간의 삶이 물질적 생명의 보존 그 이상도 이하의 가치도 지니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⁹⁾ 인간 사회의 규범이라고 하는 것들이 전쟁이라고 하는 엄청난 사건이 지나가면서 파괴되어버리고 오로지 자기 몸의 보존만이 유일하게 터득할 수 있는 삶의 진실이 되어버렸다고 여겨지는 것이다.

그러나 ‘나’ 역시 어떻게든 전쟁 통에서 자신의 안전을 보장받고 싶다는 욕구를 매우 강하게 가지고 있는 인물이기도 하다. ‘나’는 피난을 가지 못한 사람들이 이웃들에 의해 빨갱이로 몰려 죽임을 당하는 것을 보면서 총상 당한 오빠 때문에 자신까지 피난을 가지 못하는 상황을 매우 억울해한다. 그래서 ‘나’는 다시 한 번 서울이 인민군에 의해 점령당할 위기가 왔을 때 가족들이 리어카에 오빠를 싣고

8) 위의 책, 126면.

9) 여기서 신셋별이 매우 적절하게 지적한 바처럼, ‘삶은 곧 먹기’라는 박완서 소설 특유의 은유가 발동한다.(신셋별, 『박완서 소설에 나타난 ‘먹는 인간’의 의미 - 초기 장편소설을 중심으로』, 『상허학보』 제45집, 2015, 337면.)

추레하게 떠나는 피난길을 따라가지 않고 가족과 떨어져 자기 혼자 건장한 향토방위대원들과 함께 한강 이남으로 피난을 가기도 한다. ‘나’는 가족과의 의리를 지키는 것과 자기 혼자만이라도 살 길을 도모하고 싶은 마음 사이에서 전쟁기 내내 갈등한다. ‘나’ 안에서 벌어지고 있던 자신의 안전을 우선적으로라도 보장받고 싶다는 이기심과 그러한 이기심에 대한 수치심 사이의 팽팽한 갈등은 수치심 쪽으로 균형이 기울면서 자기혐오의 기제로서 각인된다. 박완서는 그 계기를 ‘오빠의 죽음’이라는 사건으로 서사화한다. 다음 장면에서 찾아볼 수 있듯이 오빠의 죽음을 둘러싼 자신과 어머니를 비롯한 가족들의 태도는 자기 한 몸의 ‘이해’를 우선적으로 따지는 이기적 태도에 대해서 작가가 얼마나 강한 수치심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장면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엄마가 밤중보다 몇 배나 크고 격렬한 소리를 낸 것은 오후 늦은 시간이었다. 우리는 엄마가 미치는 줄 알았다. 오늘 안으로 아들을 내다 물어야 한다고 엄마는 그렇게 필쩍필쩍 뛰면서 소리 지르는 거였다. 우리 집에 모여 앉은 많지 않은 사람 중에서 가장 먼저 그림자이기를 거부한 이는 역설적이게도 사자였다. 엄마가 맡은 부란의 냄새는 역질처럼 무섭게 우리에게 번졌다. 우리는 엄마를 덩달에 콩 튀듯 팔 튀듯 뛰기만 할 뿐 어찌할 바를 몰랐다. 스스로 썩어감으로써 우리하고 정을 떼려는 오빠가 싫고 무서웠다.”¹⁰⁾

“식구들이 돌아온 후 그림자처럼 살면서 아주 안 먹고 살았다고는 못 해도 거의 배가 고프는 걸 느끼지 못하고 있었다. 오늘 같은 날은 더군다나였다. 우리가 팔죽을 혐오스러워하는 걸 보고 숙모는 변명처럼 예로부터 상제가 팔죽 먹는 건 흉이 아니라고 했다. 흉이 될까 봐 안 먹는 줄 아는지, 밤이 깊어 집으로 가면서도 숙모는 팔죽에 대한 미련을 못 버리고 내일이면

10) 박완서, 앞의 책, 189면.

쉬어서 버리게 될 텐데……, 라고 했다.

“쉬어서 버리면 안 되지.”

엄마가 헛소리처럼 말하면서 팔죽을 가져오라고 손짓했다. 우리는 둘러앉아, 사랑하는 가족이 숨 끊어진 지 하루도 되기 전에 단지 썩을 것을 염려하여 내다 버린 인간들답게, 팔죽을 단지 썰까 봐 아귀아귀 먹기 시작했다.¹¹⁾

자기의 생존과 안전을 우선적으로 생각했던 ‘나’와 다르게 엄마는 오빠의 총상 때문에 피난을 못 가게 되어도 오빠를 단 한 번도 잊지 않았으며, 며느리 대신 자신이 아들의 잠자리를 돌보며 간호를 할 만큼 극진한 모성애를 보여 왔다. 그러나 엄마는 오빠가 죽고 시신이 부패의 냄새를 풍기기 시작하자 오빠가 죽었을 때보다 “몇 배나 크고 강렬하게” 자신의 감정을 터뜨리면서 “오늘 안으로 아들을 내다 물어야” 한다고 말한다. 그리고 오빠를 남의 땅에 재빠르게 암매장하고 집에 돌아 와서는 썩어 놓은 “팔죽을 단지 썰까 봐 아귀아귀 먹기” 시작한다. ‘나’에게 오빠가 죽고 나서 보였던 어머니의 태도는 이기만을 따지는 인간의 본성이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우리 가족은 사랑하는 오빠가 죽자 상실감으로 죽을 만큼 고통스러워했던 것이 아니라, 그 시신이 풍기는 냄새가 혐오스러워 한 치의 주저함도 없이 오빠를 거적때기에 싸서 야산에 갖다 묻었다. 오빠를 잃었다는 상실감은 오빠의 시신이 풍기는 냄새에 대한 혐오감보다도 결코 강하지 않았던 것이다. 다시 말해 오빠의 죽음은 오빠에 대한 사랑보다 자기를 위하는 마음이 우리 가족원들에게 더 크다는 사실을 ‘나’에게 명백히 보여주는 예로 다가왔던 것이다. 오빠의 장례 장면은 인공치하에 있을 때 인민위원장 강씨가 가족도 없이 홀로 죽은 노인을 장례 지내는 장면과 대비된다. 강씨는 노인을 단지 흠이불에 말아 묻을 수는 없다며 반드시 관에 넣어 묻어줘야

11) 위의 책, 191면.

한다고 부득부득 우긴다. “지금이야 어느 땐데 거적때기가 아닌 흠이 불에 말아서 갖다 묻는 것도 과람한 줄 알아”야 한다는 동료의 반대하는 말에 강씨는 도끼를 들고 동료를 위협하기까지 한다. 결국 강씨는 자신의 고집대로 관을 만들어 최소한의 ‘예’를 갖춰 죽은 이를 묻어준다. 이와 비교해볼 때 ‘나’의 가족은 썩는 냄새의 혐오감 때문에 죽은 자에 대한 형식적인 예의에 들이는 최소한의 수고조차 ‘아까워’ 하는 것이다. 그 죽은 자가 사랑해 마지않는 오빠였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오빠의 죽음’이라는 사건을 통해 박완서는 서로에게 가장 이타적일 것이라 믿어지는 가족 안에서도 경제적 효율성을 따지면서 자기 몸을 보전하려는 개인적 욕구가 그 내부에 단단하게 도사리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은 이기적 욕구를 비도덕적이라고 보면서 수치심을 갖는 작가는 이를 오빠에 대한 ‘나’의 죄의식으로 나타낸다. 그러나 ‘나’는 오빠에 대한 속죄로서 자신의 자기보전 욕구를 억누르는 대신 죄의식을 누르고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 밖으로 나선다.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 밖으로 나서는 ‘나’의 행동은 어린 조카들이 제대로 못 먹고 병들어 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들을 부양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끼기 때문이라고 합리화된다. 박완서는 자기보전 욕구에 대해 수치심을 강하게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수치심의 수준에서 간직할 뿐 자기보전 욕구를 결코 부정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배고픈 것만이 진실”이기 때문이다.

마약처럼 한번 맛들이면 도저히 끊을 수 없는 황홀경이 바로 미제의 맛이였다. 조카들은 특히 초콜릿을 섞어 걸쭉하게 농축한 타디라는 깡통우유를 좋아했다. 겨우 말을 하는 현이가 타디, 타디 하는 소리는 데디, 데디 하는 것처럼 들려서, 엄마 까지도 덩달아 그 우유를 데디라고 했다. 현이는 한 번도 아빠라는 말을 해본 적이 없다. 이제 와서 데디라니. 나는 그 소리

만 들으면 그 좋은 미제가 게을 것처럼 느글느글해져서, 그만해, 제발 그만해, 신경질을 부리곤 했다. 그래도 참아야 했다. 미제의 힘은 놀라웠다. 뻘뻘 말라 머리통만 크고 목이 가늘고, 입 귀통이가 험고 그 언저리에 허영게 버짐까지 피어나던 아이들이 단시일 내에 포동포동 살이 오르고 윤기가 흘렀다¹²⁾

가족 부양을 위해 PX 길로 취직한 ‘나’는 40만원 상당의 월급을 받아 온다. 가족들은 그 돈으로 생활의 안정을 찾아 간다. 입언저리에 버짐이 피었던 조카들은 ‘나’가 가져다 오는 미제 식품들을 먹으면서 “포동포동 살이 오르고 윤기가 흘”러간다. 그러나 ‘나’는 이만큼이나 잘 살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도둑질로 생계를 연명할 때보다도 더한 “남루와 비참의 극한”을 맞본다. ‘나’에게 있어 일을 한다는 것은 생계 유지를 넘어 더 잘 먹기 위해 적극적으로 물질을 추구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조카 현이는 ‘나’가 PX에서 가져온 미제 깡통우유 ‘타디’를 먹으면서 ‘대디’ 소리를 하는데, ‘나’는 그 소리만 들으면 “게을 것처럼 느글느글해져서, 그만해, 제발 그만해, 신경질을” 부린다. 조카 현이의 ‘대디’ 소리에 현이의 아빠이자 ‘나’의 오빠의 죽음이 상기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오빠의 죽음을 상기하는 것은 ‘나’에게 오로지 자기 몸의 보전 하나만을 위하여 일하며 살아간다는 것에 대한 수치심을 자극한다. 그러나 자기보전의 이기심을 비도덕적이라고 판단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참아야 했다.”

이 소설이 박완서의 자전적 소설이라는 점을 염두해둘 때, 이와 같은 서사는 작가에 관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짐작하게 해준다. 박완서는 한국전쟁을 계기로 자신이 생리적으로 취약할 수밖에 없는 ‘몸’이라는 사실을 처음으로 자각하게 되었다. 그리고 소설 속 ‘나’가 배고픔과 같은 생리적 반응을 물질에 대한 과도한 욕망으로 이해한다는 사실을 볼 때, 자신이 물질적 필요를 항상 충족해주어야 하는

12) 위의 책, 248면.

‘몸’에 불과하다는 작가의 자각은 스스로에 대해 수치심을 느끼도록 만들었음을 알게 해준다. 이때의 수치심은 이제까지 자신을 정신적이고 자율적인 주체로 믿어왔기 때문에 발생할 것이다. 작가의 분신이라 할 수 있는 딸들이 ‘배고픔’으로 대표되는 자기보전 욕구에 ‘굴복’한다는 사실을 자신의 비도덕성에 대한 증거로 여기는 것은 이러한 이유에서이다. 이에 더하여 일을 한다는 것은 먹을 것을 구하려는 적극적 행위라는 점에서 박완서는 일 자체를 찬한 것으로 여기게 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박완서를 비롯한 박완서 소설 속 딸들의 한국전쟁기 여성들의 삶을 바라보는 관점과 여성으로서의 자의식 형성은 이상과 같은 수치심으로부터 출발한다.

3. ‘전쟁 모성’에 대한 딸의 혐오

작가에게 있어 자기보전이라고 하는 이기적인 욕구는 여성이라는 성별을 갖는다. 그리고 작가는 여성이라는 성별이 어머니가 되기 위해 있다고 보므로 이 욕구를 모성적인 것으로 이해한다. 작가의 데뷔작인 『나무』(1970)을 통해 이와 같은 이해의 과정을 추적해볼 수 있다. 『나무』(1970)에서 이경은 오빠의 죽음 이후 수치심과 죄의식에 의해 ‘흑백’으로 탈색되어버린 삶에서 벗어나 생의 온갖 화려한 색깔들을 회복하고 싶어 한다. 이경은 생의 즐거움 혹은 몸의 이(利)를 누리는 것이 결코 죄의식을 가질 만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말초적 쾌락을 탐하려고도 한다. 그러나 이경은 사실 이에 대해 깊은 수치심을 지니며 옥희도라는 예술가를 사랑함으로써 몸의 이해를 추구하는 세속을 대리 초월할 수 있기를 바라기도 한다. 이경과 달리 어머니는 오빠의 죽음에 대한 속죄로 자신의 목숨을 내놓

으려는 인물이다. 장성한 아들 들을 북한군의 폭격에 의해 한꺼번에 잃은 어머니는 회색빛 옷, 회색 머리카락처럼 무채색의 인간이 되며 피골이 상접할 정도로 마른 몸이 되어 중국에는 죽음을 맞는다.

『나목』(1970)에서 작가가 몸에서 기인하는 모든 생리적 욕구들을 철저히 부정함으로써 속죄하려는, 도덕적으로 완결된 인물을 ‘어머니’라는 형상으로 나타내는 것은 사회 규범상 어머니라고 하는 역할에 자기희생이라고 하는 도덕성이 결부되어 있기 때문이다.¹³⁾ 그러나 작가가 이경의 어머니의 모습을 일반적인 어머니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다. 딸 이경이 아들을 따라 굶어 죽으려는 어머니를 직접 목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착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이 어머니라는 이름에 너무 관대한 게 나에겐 견딜 수 없이 화가 났다”¹⁴⁾고 말하며 어머니라고 칭해지는 이들에 대해 증오의 감정을 보이는 것은 이 때문이다. 이와 같은 어머니에 대한 비난은 양공주 다이아나에 대한 이경의 혐오를 통해 드러난다.

그녀는 여러 벌의 옷을 바꿔 입듯이 여러 벌의 자기를 갖고 있어서 수시로 바꿔 입고 있다. 구미호처럼 능란하게. 어떤 것이 여벌의 다이아나고 어떤 것이 진짜 다이아나일까? 다이아나란 이름도 실은 여벌일 게다. 진짜는 복순이나 순득이쯤일 게다.

13) 본고에서 본격적으로 다루지 않으나, 도덕적으로 완결된 인물을 어머니로 상징하는 작업 역시 박완서에게 결코 수공될 수 있는 작업은 아니다. 이상적으로 여겨지는 자기희생적인 어머니는 ‘딸’의 어머니가 아닌 ‘아들’의 어머니이기 때문이다. 이경이 자신의 어머니에게 자신의 존재가 정말 어머니에게 있어 살아갈 만한 한 톨의 이유도 되지 않는지 거듭하여 묻고 이에 대한 어머니의 암묵적 동의에 마음을 계속해서 다치는 것은 이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볼 때 박완서는 어머니라는 역할에 도덕규범에 대해 강한 확신도 가지지 못하면서, 그렇다고 어머니가 이기적일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도 못하는 모순적인 상황에 처한다. 이런 두 모습의 어머니 사이에서 오도가도 못하는 딸의 입장을 그린 단편으로 『환각의 나비』(1995)를 들 수 있다.

14) 박완서, 『나목』, 세계사, 2012, 193면.

악착같이 달려에 집착하고 껌둥이에게 안기고 연년생으로 잘생긴 아이를 낳고, 그 아이의 아버지의 아내이기도 하고, 옥희도 씨를 모욕한 게 다이아나 김이었으면서도 그중 몇 개는 가짜임에 틀림없고, 그녀 자신은 아마 어머니인 자기 배역이 가장 마음에 들어 그게 진짜로 보이고 싶은 눈치지만 나는 절대 그렇게 속아주진 않을걸 하고 부질없이 마음을 도사려 먹었다.

어쩌면 그녀는 온통 가짜투성이고, 어머니고 같보고 수전노고 다 가짜고 가짜를 빼면 그녀는 마치 빈 동굴 같을 게라고, 완전한 허인 그녀, 나의 어머니 같은 허만 남겨진 그녀를 상상하고 나는 비로소 복수의 쾌감 같은 걸 느꼈다.¹⁵⁾

이경에 따르면 양공주 다이아나는 돈에 집착하고 예술가를 모욕하는 천박한 여자이면서 자애로운 어머니이자 정숙한 아내이기도 한 모순을 지닌다. 이경에게 있어 진짜 어머니는 이러한 천박한 모습은 가질 수가 없다. 따라서 이경은 다이아나의 어머니라는 역할이 거짓이라고 생각한다. 다이아나는 자신의 여러 역할 중 어머니 역할이 가장 좋은 것이므로 “그게 진짜로 보이고” 싶어 어머니 역할을 연기하고 있을 뿐이다. 그래서 이경은 다이아나가 아들들에게 자애롭게 빵을 먹이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자신은 절대 다이아나에게 속지 않겠다고 다짐한다. 이경은 다이아나 속에 ‘어머니’라는 여성의 본질은 담겨 있지 않으므로 다이아나에게 “온통 가짜투성이”이고 “마치 빈 동굴” 같다고 비난한다.

이경에게 있어 다이아나뿐만 아니라 모든 여성이 “완전한 허”이다. “나의 어머니 같은 허만이 남겨진 그녀”라는 이경의 말은 이경이 ‘허’의 이미지로서 여성성을 추상하고 있음을 짐작하게 해준다.

어머니가 별로 소리도 내지 않고 한껏 느릿느릿 수저를 놀

15) 위의 책, 270-271면.

리면서 의치를 빼놓은 호물때기 입을 이상한 모양으로 우물거리는 것을 보고 있으면 먹는다는 것이 무슨 저주받은 의무로 느껴져 나는 미처 배가 부르기도 전에 식욕부터 가셨다

나는 먼저 수저를 놓고 어머니의 식사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왈카왈카 치미는 혐오감을 되새김질했다.¹⁶⁾(강조 인용자)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다이아나로 시작된 애절한 보고품을 호소한 편지를 읽어주는 도안 그녀는 줄곧 줄칼로 길고 아름다운 손톱을 갈며 입으론 별난 소리를 내며 껌을 씹고 있었다. 손톱을 가느라고 내려뜬 눈은 짙은 속눈썹에 가려 별표정이 엿보이지 않았으나 눈 밑의 피부가 늘어진 건 그녀의 숨은 나이를 말해주는 것 같아 처량했다.

...

그녀는 별 반응 없이 선인장에 핀 꽃처럼 요기롭게 다듬어진 손톱을 자못 만족한 듯이 감상하고 나서

“싱겁게 그뿐이야? 크리스마스가 내일모런데 선물 얘기도 없구...”

하품을 크게 했다.

동그란 목구멍이 마치 빈방의 입구처럼 황량하게 열려 있었다. 고쳐도 환희도 깃들어 있지 않은 을씨년스러운 빈방.¹⁷⁾(강조 인용자)

나보다 두 살 아래 양갈래로 탄 윤기 있는 머리와 건강한 볼을 가진 이 소녀에 대해 나는 별안간 궁금증이 났다. 그녀의 내부도 역시 썰렁한 빈방일 따름일까 하고.

“너 하품 좀 해볼래?”

“언니, 하품도 마음대로 하우? 오늘 매상이 없어 하품을 많이 하긴 했지만.”

“그럼 입이라도 벌려봐. 아 하고.”

그녀는 순순히 입을 크게 벌렸다. 선명하게 붉은 입속과 목

16) 위의 책, 21면.

17) 위의 책, 42면.

천장에 매달린 목젓.

그녀는 이내 입을 닫고 미군이 기웃거리는 자기 매장으로 갔고, 나는 멍청하니 아까 다이아나 김에게서 엿본 빈방과 그 빈방을 공허하게 울리는 전화벨 소리 같은 ‘마브’의 연애편지를 생각하며, 왈카왈카 목구멍으로 치솟는 싫증을 주체 못하고 있었다.¹⁸⁾(강조 인용자)

이경은 다이아나의 하품하는 모습을 보며 “동그란 목구멍”을 따라 내려가면 있을 “빈방”을 연상한다. 이 “빈방”은 “고뇌도 환희도” 어떠한 것도 들어가 있지 않은 텅 비어있음에 불과하다. 그리고 이러한 비어 있음이 여성성으로 추상화됨에 따라 이경은 PX에서 일하는 후배에게 입을 벌려보라고 하여 밝고 건강한 그녀에게도 이러한 텅 비어 있음이 있는지 확인하려 하기도 한다.

그러나 “온통 가짜투성이”인 여성들도 ‘진짜’로 지닌 것이 단 하나 있다. 위의 첫 번째 예문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나목』에서 어머니의 모습은 의지를 빼버린 “호물때기 입”의 이미지로 처음 나타난다.¹⁹⁾ 이후 발표될 다른 박완서 소설에서도 ‘입’은 ‘비어 있음’과 함께 모성을 나타내는 중요한 상징으로 쓰인다는 것을 염두할 때, 박완서의 데뷔작인 『나목』에서 어머니가 등장하는 첫 장면이 “호물때기 입”의 묘사라는 사실은 더욱 의미심장하다고 할 것이다. 이경의 어머니가 아들의 죽음으로 생의 의지를 잃어 아무것도 저작할 수 없는 “호물때기 입”이 되어버렸다면 강한 생존 욕구를 지닌 다이아나

18) 위의 책, 44면.

19) 신셋별은 어머니의 “완전한 허”가 아들이라는 사랑하는 대상을 잃음으로써 발생한 정신적 외상이라고 보고 있으며 정신분석학의 용어를 빌려와 이를 ‘결여’로 설명한다. 그리고 ‘결여’라는 심리적 상태의 극복을 위해 육체적인 허기가 발생했다고 설명한다.(신셋별, 앞의 논문) 이에 따라 이경의 먹는 행위를 오빠에 대한 애도를 중식하고 ‘삶다운 삶’을 복원하려는 의지로 해석된다. 이러한 해석은 본고가 『나목』(1970)에서는 물론 작품 전반에 걸쳐 박완서가 먹는 행위에 대해 내리고 있다고 보는 부정적인 가치평가와 상반된다고 할 수 있다.

는 “별난 소리를 내며 껌을 씹”는 공격적인 입을, 아직 순진한 후배 PX 걸은 “선명하게 붉은 입속과 목 천장에 매달린 목젓”처럼 비교적 건강한 입을 가진다. 여성들에게는 ‘입’만이 유일한 진짜인 것이다.

이와 같은 작가의 여성에 대한 이미지는 한국전쟁기 여성들의 실생활 모습을 목도하면서 어머니라면 응당 지닐 것으로 여겨지는 도덕적 자질이 허구에 불과한 것이라고 여기면서부터 발생했다고 추측할 수 있다. 엄청난 수의 젊은 남성들을 죽게 만들었던 한국전쟁은 가장을 잃은 여성들로 하여금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실질적인 역할을 담당하도록 만들었다.²⁰⁾ 소위 ‘강한 어머니’라고 불리는 한국적 모성은 이러한 전중과 전후의 시대 분위기 속에서 탄생한다.²¹⁾ 박완서가 한국전쟁 당시 PX에 근무하면서 목격한 바처럼 당시 많은 여성들은 가족 부양을 위하여 양공주 다이아나와 같이 자신의 성을 매개로 돈을 벌거나 PX 내의 청소하는 아주머니들처럼 잡역부로 일하거나 자신의 숙모나 올케가 그러했던 것처럼 시장에 좌판을 깔거나 보따리 장수를 하여 돈을 벌었다. 어머니라면 응당 가지고 있어야 할 순종적인 자기희생의 미덕은 이들에게 보이지 않았으며, 대신 오로지 생계를 위해 전력투구하고 자기의 이해만을 추구하는 드셈과 그악스러움만이 있을 뿐이었다. 박완서는 이러한 가장 잃은 가난한 여성들, 물질적 필요를 충족하는 데 온 힘을 쏟는 여성들로부터 수치심을 자극받는다. 본고는 박완서가 『그 남자네 집』에서 전쟁기 여성들을 “전쟁어머니”라고 부르고 있다는 데 착안하여

20) 여성사가 김귀옥에 따르면, 3년간의 한국전쟁은 남북 전체 인구의 13%에 해당하는 400여만 명의 사망자를 냈으며 휴전에 따른 분단은 100여 만 명의 이산자를 발생시켰다. 이때 전사자나 실향민의 상당수는 20-30대의 젊은 남성들이었다. 당시 남성의 초혼 연령은 24.7세였으며 여성의 초혼 연령은 20.5세였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전사자나 행방불명된 이의 상당수가 젊은 가장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수많은 젊은 가정의 죽음은 곧 그 수만큼의 젊은 미망인의 발생을 의미한다.(김귀옥, 앞의 글, 43-44면)

21) 윤택림, 앞의 책, 49-51면 참조.

한국전쟁이 만들어낸 이와 같은 여성성을 ‘전쟁 모성’이라고 부르고자 한다.

박완서는 ‘전쟁 모성’을 본질적 여성성으로 파악한다. 박완서는 여성이란 기본적으로 속은 비어 있고 오로지 먹을 것을 구하는 입만 지닌 존재들로 이들의 공복(空腹) 상태는 먹을 것에 대한 무한한 소유욕을 만들어낸다고 본다. 따라서 물질에 대한 소유욕 그 자체가 여성적 욕망으로 여겨진다. 이로써 『나무』(1970)의 축 늘어진 어머니의 작은 입 구멍은 어떤 것도 맹렬히 빨아들이는 커다란 입 구멍이 되어 『살아 있는 날의 시작』(1980)이나 『휘청거리는 오후』(1976), 『도시의 흉년』(1979), 『주말농장』(1973) 등에서처럼 끊임없이 음식이 들어가는 큰 구멍으로서의 입, 아무리 먹어도 채워지지 않는 커다란 위를 가진 뚱뚱한 푸뚱자루 같은 몸, 잠시라도 다물고 있지 못하는 수다스러운 입, 무언가를 맹렬히 저작하고 싶은 입을 가진 여성의 모습 등으로 변형되어 등장한다.

이경이 다이아나를 “어머니고, 갈보고, 수전노고 다 가짜고”라고 비난하는 것에서처럼 박완서는 여성들이 특히 ‘어머니’, ‘갈보’, ‘수전노’라는 세 가면을 번갈아 쓰면서 물질에 대한 소유욕으로서의 여성성을 실현한다고 본다. 공복에서 비롯되는 어머니의 소유욕은 그동안 물질적 기반이 되어주었던 가정이 없어지는 전쟁과 같은 때 적나라하게 발현된다. 『살벌했던 날의 할미꽃』(1977)은 먹을 것에 대한 여성의 소유욕이 늙었음에도 수그러지지 않는 성욕으로 발휘됨을 보여준다. 『살벌했던 날의 할미꽃』(1977)의 첫 번째 이야기에서 노파는 한국전쟁으로 마을에서 남성들이 모두 사라진 상태에서 미군들이 들어와 여자를 찾는 소리를 듣는다. 이 노파는 자진해서 미군에게 자신의 몸을 내주겠다고 얘기한다. 이제 더 이상 ‘여자’라는 소리도 어울리지 않을 만큼 늙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노파는 여전히 스스로를 성적 매력을 가진 여성이라고 평가하며, 노파의 착각은 마

을의 젊은 여자들과 미군들에게조차 비웃음의 대상이 된다. 노파는 몸을 파는 데는 실패했지만 먹을 것을 얻어오는 데 성공한다. 두 번째 이야기에서는 전쟁으로 인해 아들을 잃고 상심에 빠져있던 노파에게 우연히 아들뻘인 젊은 군인이 찾아온다. 이 젊은 남성은 노파에게 숯총각 딱지를 못 때면 총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를 들은 노파는 언제 아들을 잃고 상심했냐는 듯 그럼 자신과 밤을 보내지 않겠냐고 회색이 만연한 얼굴로 그를 유혹한다. 자신의 어머니뻘인 노파와 밤을 보내게 된 젊은 군인은 그 다음날 아침 자신에게 ‘또 오라’고 말하는 노파의 번들거리는 성욕에 질려 그 이후로 극도로 여성을 혐오하게 된다.²²⁾ 작가는 다음 인용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죽는 날까지 여자임을 못 면”하는 ‘여자라는 것’에 대한 지긋지긋한 심정을 기술하고 있다.

지금까지 한 두 사람의 노파 이야기는 어느 친구한테 들은 실제로 있었던 노파들 이야기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의 노파들은 서로 아무런 상관도 없다. 거의 비슷한 시기에 이 땅에 태어났다는 것 말고는.

그런데도 굳이 이 두 노파를 한자리에 모시고 싶었음에 내가 발견한 노파들의 어떤 공통점 때문이다.

그들은 하나같이 욕되도록 오래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노파라든가 할머니라든가 하는 중성적인 호칭이 안 어울리는 강렬한 여자다움을 못 버렸었다. 여자라는 것에서 헤어나질 못했다. 나는 차마 그들을 노파라고는, 할머니라고는 못 하겠다.

22) 노파의 성욕이 어머니로서의 ‘희생’의 의미를 띤다고 분석하는 논의들도 있다. 이 논의들에서는 젊은 군사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어머니가 자기 한 몸을 희생하여 아들과 성관계를 맺었다고 분석한다. 어머니가 자신의 아들과 성관계를 갖는 것도 모성애가 발휘되는 한 양상일 수 있을지 대한 의문은 차치하고서라도, 이 논의들에서는 왜 젊은 남성이 자신과 관계를 맺은 노파로 인해 여성을 혐오하게 되는지 설명하지 않고 있다. (하응백, 『모성, 그 생명과 평화』, 박완서, 『배반의 여류』, 문학동네, 1999; 이인숙, 『박완서 단편에 나타난 여성의 '성'』, 『국제어문』 제22호, 2000.)

여자라고밖에는.

지금도 시골에 가면 차들은 뺨질나게 다니는데 포장은 안 된 황톳길이 있다. 그런 길가에서 허구한 날 먼지를 뒤집어써서 마치 도시의 삼류 왜식집 베란다에 장식한 퇴색한 비닐 모조품 꼴이 돼버린 풀밭에서 문득 찢어지게 선명한 빛깔로 갖 피어난 들꽃을 본 사람이 있는가. 있다면 알 것이다. 기가 차고 민망한 대로 차마 그제 꽃이 아니라곤 못 할 난감하기도 지켜온 심정을 그런 심정이 되어 그들 노파를 여자라고 부를 수밖에 없다.

성적인 의미의 여자라도 좋고, 나의 할머니가 특하면 몸서리를 치면서 전생으로부터 특별히 많은 죄를 짊어지고 태어났다고 믿는 족속으로서의 여자라도 좋고, 심심한 남자들이 각별히 심심한 시간에 그 족속들에게도 영혼이라는 게 있나 없나는 무성의하게 회의하는 대상으로서의 여자라도 좋고, 아기들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제일 먼저 얼굴과 호칭을 익히는 엄마로서의 여자라도 좋다. 아무튼 그 노파들은 여자였다고, 죽는 날까지 여자임을 못 면했었다고 말해주고 싶다.²³⁾

공복이 만들어내는 여성의 소유욕은 재물욕과 아들 욕심으로도 발현된다. 단편 소설 『가(家)』(1989)에 등장하는 어머니는 허영심에 시골에서 도시로 이주하여 치부한다. 그러다 남편이 죽자 폐경이 가까운 나이에도 불구하고 성매매를 하면서까지 치부를 멈추지 않는다. 그리고 기어코 아들까지 낳는다. 『도시의 흥년』(1979)의 엄마 역시 마찬가지이다. 전쟁으로 남편이 부재하는 상황 즉 가난의 상황에 부딪히면서 엄마는 자기 내부에 “단단한 욕심의 씨앗”이 자리잡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엄마는 그 욕심의 씨앗을 빈 집털이를 통해 키워나간다. 그리고 미군이 들어오면서부터는 양공주들의 포주가 되어 치부한다. ‘어머니’이자 ‘갈보인’ 엄마에게 있어 아버지의 자리는 점점 더 돈으로 대체되어 가며 이후 산업화 시대가

23) 박완서, 『그 살벌했던 날의 할미꽃』, 『배반의 여름』, 문학동네, 2013, 303면.

되면서부터는 ‘자리’ 장사와 ‘돈’ 장사 즉 지대와 이자라는 불로소득으로 더욱 더 크게 치부한다. 엄마의 공복으로서의 여성성은 산업화 시대의 동력이 되는 것이다. 또한 엄마는 아들 수빈을 성인이 되어도 자기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유아적 존재로 기름으로써 아들에 대한 지배력을 행사하고자 한다.

한국전쟁기에 먹고살기 위해 진일 굶은일을 가리지 않고 악착같이 돈을 벌고자 했던 여성들의 멘탈리티를 강한 자기보전 욕구로부터 기인한 소유욕으로 바라보는 박완서의 시각은 한국 여성성에 대한 어느 정도의 사적(史的) 진실을 담고 있기도 하다. 안전을 보장해줄 국가도 마을공동체도 가부장도 부재한 상태에서 여성들은 가족의 생존과 대의 계승을 전적으로 혼자 책임지면서 이기적이 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남편을 잃고 평균 2-3명의 아이를 오직 혼자 힘으로 키워야 했던 여성들은 당장의 물질적 충족을 위해서 억척스레 생활을 꾸려나갈 수밖에 없었다. 한국의 가족이기주의가 근대적으로 변형된 것도 이 여성들을 통해서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이 때문이다.²⁴⁾ 박완서는 ‘전쟁 모성’의 강인한 생활력의 이면에는 타인을 경쟁의 대상이자 불신의 대상으로 보면서 자기 식구만을 챙기는 이기심이 있으며, 아들에게는 사랑을 쏟아부으면서 딸은 경제적 자원으로 착취하는 비정이 있음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전쟁 모성’은 한국전쟁이 가족이기주의의 주체로서 여성을 지목함으로써 만들어진 것으로, 여성이 본래부터 소유욕을 가지기 때문에 형성되는 것은 아니다. 이 당시 가난한 여성들의 물질에

24) 전쟁기의 강한 어머니들은 아들의 성공을 자신의 삶의 목표로 삼았다. 이는 피를 나눈 ‘가족’이라는 개념을 강화시키면서 가족의 이익을 가장 중요시하는 가족이기주의를 발전시켰다. 강한 어머니들이 가족이기주의를 근대적으로 변형시킨 장본인들이었다는 점은 여기서 비롯된 사실이다. 모 중심 가족으로 인해 여성과 가족은 더욱 동일시되게 된다. 그러나 이는 가족 안에서 어머니가 강해졌다는 뜻이지, 여성이 강해졌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윤택림, 『한국의 모성』, 51면 참조.)

대한 이기적인 집착은 여성에게 쉽게 경제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가족을 부양할 책임은 여성에게 짊어주었던 당대의 사회 맥락 하에 형성된 것이었다. 박완서는 '전쟁 모성'을 전쟁이 가져다 준 극도의 궁핍과 전쟁에도 파괴되지 않는 굳건한 가부장제의 산물이라고 보지는 못하며 이를 자기보전을 위한 여성의 선천적인 이기심으로 폄하한다. 생계 문제에 완전히 포박된 삶을 살고 있는 가난한 여성에 대한 작가의 혐오에는 자신의 가난에 대한 수치심이 투영되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가난하다는 것은 물질적 필요를 충족시키지 못함을 뜻하며, 물질적 필요를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것은 물질에 의존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지 확인해야 하는 정신적 '수모'를 겪게 하기 때문이다.

4. '결혼'이라는 가난으로부터의 도피처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1992)와 『그 산이 정말 거기 있었을까』(1995)는 박완서가 자신의 한국전쟁 경험을 거의 사실에 가깝게 서술하려고 한 자기 서사인 반면, 『그 남자네 집』(2004)은 자전적 체험을 바탕으로 하기는 하나 허구의 요소가 강하게 가미되어 있는 자기 서사이다. 또한 전자의 두 소설이 한국전쟁의 '피해자'라는 관점에서 이야기를 서술하고 있다면, 『그 남자네 집』(2004)은 그 고난 특히 가난의 고난으로부터 겨우 '탈피'한 자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서술하고 있다는 점에서 관점의 차이도 크게 나타난다. 본고는 여기서 고난을 '극복'했다는 표현을 쓰는 것을 의도적으로 피한다. 왜냐하면 『그 남자네 집』(2004)의 서사에서는 고난 상태를 극복한 자가 느낄 만한 성취감 대신 수치심이 배어 있기 때문이다. 이때의 수치심은 여성이 한국 사회에서 경제적으로 차지하는 위치로

부터 만들어진다.

자기보전 욕구를 수치스러워 하면서도 자기보전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박완서는 인정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자기보전 할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사회경제적 조건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로써 질문은 좀 더 구체적이게 된다. ‘여성’인 나는 어떻게 자기보전 할 수 있는가? 당시 경제활동의 ‘주역’이었던 전쟁미망인들, 초등학교 이상의 학교 교육도 받지 못하고 문자해독력을 가지지도 못했던 이들은 대체로 시장에서의 노점상, 옷이나 채소 등의 행상, 샷바느질과 같은 비공식 부문에 종사했다. 당시에는 공식 부문 자체가 적었으며, 여성 게다가 교육도 받지 못한 여성이 공식 부문에 진출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없었기 때문이다.²⁵⁾ 이러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1950년대 가장 없는 여성들, 가장 없는 가난한 여성들은 돈을 벌 수만 있다면 어떤 허드렛일도 마다하지 않았다. 그러나 여전히 전쟁에도 무너지지 않는 사회규범상 정숙한 여성은 노동하지 않는다고 인식되었다. 다시 말해 사회규범은 여성이 경제력을 획득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가장으로부터의 경제적 지원만을 정당하다고 인정할 뿐이었다. 또한 1970-80년대까지 ‘직업여성’이라는 말이 성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여성이 노동을 한다는 것은 가장 없는 여성 즉 보호로부터 벗어난 여성, 온갖 남성의 손길에 노출된 ‘내놓은’ 여성이라는 표지였다. 따라서 작가에게 있어 생계를 위해 노동하여 돈을 번다는 것은 앞 장에서 설명한 바처럼 물질적 욕망을 적극적으로 충족하려 드는 비도덕적 행위로 여겨진다는 점에서 스스로에게 수치심을 주는 것임은 물론 여성이 노동을 한다는 것은 여성에게 기대되는 사회적 역할 규범을 포기할 만큼 돈을 필요로 하는 가난한 여성이라는 표지가 되었다는 점에서 창피스러운 일로 여겨진다.²⁶⁾

25) 김귀옥, 앞의 글, pp. 48-56. 참조하여 요약 정리.

『나무』(1970)을 비롯한 『그 산이 거기에 있었을까』(1995), 『그 남자네 집』(2004)과 같은 소설 속에서 자신의 PX 걸로서의 생활 경험을 서술하는 부분에서 작가가 자신이 결혼 전 ‘일’을 했다는 것에 대해 일종의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음을 읽을 수 있는 것은 이 때 문이다.

은행원이라는 게 웬만한 허물은 덮고도 남을 만큼 대단해 보였다. 도대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 보면 모르냐. 허둥대고 있었다. 사실 나는 엄마보다 더 나의 악조건을 의식하고 있었다. 내 콧대가 어떤 콧덴데 상고 출신이 아랑곳인가. 그의 조건에 내가 감지덕지하는 건 나의 악조건 때문이다. 나의 악조건은 객관적인가, 단지 나의 자격지심인가. 그것도 실은 확실하지 않았다.²⁷⁾

『그 남자네 집』(2004)의 ‘나’는 자신에게 관심을 보이는 남자가 은행원이라는 이유로 단박에 호감을 느낀다. ‘나’는 서울대학생인 자신이 고작 상고밖에 나오지 않은 남자를 놓칠까봐 전전긍긍하는 것은 스스로도 자신의 “악조건”을 의식하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PX에서 일한 여성에 대해 당시 사회가 가지고 있었던 편견을 스스로도 의식하고 있었던 것이다. 기존 박완서 소설 연구에서는 전쟁 중 PX에 근무하며 경제활동을 하는 딸의 이야기를 여성이 경제적 주체로서 해방을 얻었다는 식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전쟁으로

26) 1950년대에 경제 활동을 했던 기혼 여성들은 비록 자신이 당시 엄청난 양의 노동을 감당하고 남편보다 월등한 경제력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의 자신을 별다른 경제활동을 하지 않은 전업주부로 정체화하여 회고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한다. 이는 여성으로서의 자신의 삶에 있어 노동 경험이 유의미하다고 생각하지 않아 기억으로 남길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여성의 삶의 성공 여부를 평가하는 사회적 기준에 노동이 완전히 제외되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현상이 발생한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이다.(윤택림, 앞의 책, 2001; 김귀옥, 앞의 글, 2004; 박혜경, 앞의 글, 2015; 나성은, 앞의 글, 2015 참조.)

27) 위의 책, 80면.

인해 당장의 생계가 불안한 상황에서 일자리를 찾아 나서는 것은 경제적 상황에 ‘종속’된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경제적 ‘주체’가 되었음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경제적 주체가 되기 위해서는 우선 개인에게 일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어떤 일자리를 구할 것인지 선택의 가능성이 열려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임금을 받는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여성이 경제적 주체가 된다고 얘기하는 것은 일제 시기 이후로 현재까지 한국의 노동시장에서 여성 노동력이 사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저임금으로 착취당해왔다는 사실을 무의식적으로 도외시하게 되는 결과를 낳을 위험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이는 가정 내에 유포된 중산층 전업주부라는 자본주의 사회의 ‘규범’으로서의 여성상을 여성 전체의 일반적 ‘실제’ 삶의 모습으로 오해하는 데서 비롯될 것이다. 『나목』(1970)에서 PX에 근무하는 이경, 『목마른 계절』(1978)에서 무능력한 어머니와 울케 때문에 밤도둑질을 나서야 했던 진이, 『그 산이 정말로 거기에 있었을까』(1995)에서 ‘양키 찌꺼기’로 연명한다고 자조하는 ‘나’는 경제적 능력을 갖춘 떳떳한 주체로서 자긍심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일을 하는 자신을 부끄럽게 여긴다. 이들이 자신을 도둑질로 내몰면서도 이를 모른 척하고 고상함이라는 가면을 끝까지 고수하려는 어머니에 대한 미움, 울케나 어머니가 위기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 없는 여성이라는 데 대한 혐오, 미군에게 비굴함을 느끼면서도 이에 대항할 수 없을 정도로 생존 문제에 포박된 자기 자신에 대한 수치심으로 괴로워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나’는 자신이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생업에 종사했다는 것에 대한 수치심을 어머니에 대한 원망으로 나타내기도 한다. 이 원망에는 여성인 자신이 가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가장의 책임을 떠맡게 되어 어머니와 가족들을 부양하고 있다는 억울함이 기저에 놓여있다. 딸의 억울함은 딸의 ‘공’을 잘 인정하려 들지 않는 어머니에 의해 더욱

증폭된다. 아래 예문에서 보듯이 『그 남자네 집』(2004)에서 어머니에 대한 딸의 원망은, 어머니가 딸이 돈을 버는 것에 감사는커녕 수치스러워 한다는 이유로 표출된다.

나는 그후 미군부대에 취직을 했다. 그전부터 부대에서 허드렛일을 하는 이웃 아줌마가 우리 처지를 딱하게 여겨 소개해주겠다는 걸 어머니가 굶어죽어도 그 노릇만은 못 시킨다고 펄쩍 뛰어 못 하던 취직 자리였다. 아줌마는 나 같은 대학생은 청소보다 나은 자리도 있을 것처럼 말했는데 그걸 어머니는 양공주 자리가 났다는 것처럼 알아들었나 보다. 열무장수의 실패는 어머니에게도 충격이었던지 혹은 목구멍이 포도청이었는데 어머니는 못 이기는 척 설득을 당했고, 그후 나는 미군부대의 꽤 편한 자리에 취직이 되었다. 먹고사는 문제가 해결됐는데도 가난은 날로 남루해졌다. 딸이 미군부대에서 벌어오는 돈으로 먹고사는 걸 식구들이 치욕스러워했기 때문이다.²⁸⁾

엄마는 내 직업을 남이 안보는 데니까 용납했다는 식으로 뿔뿔하지 못하게 여기고 있었다. 다섯 식구가 편안히 먹고 살았을 뿐 아니라 입가에 버짐이 피던 조카들이 분유통 그림에 나오는 우량아처럼 살이 포동포동하고 야들야들해진 게 누구 덕인데. ... 엄마가 이제 와서 그런 나의 공력을 창피하게 여기는 것보다 더 야속한 것은 더는 학교에 못 보내겠다는 한마디였다. 딸의 꿈이 걸린 그런 중대한 일을 어찌면 그렇게 무토막 자르듯이 말할 수가 있을까.²⁹⁾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일을 한다는 것에 대한 수치심과 어머니가 자신의 공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아준다는 피해의식은 자신의 일자리가 미군부대라는 사실로 인해 더욱 강해진다. 위의 예문에서도 나타나고 있듯이 미군부대에서 일을 하는 여성은 누구나 다 '양공주'로

28) 위의 책, 35면.

29) 위의 책, 65-66면.

여겨지던 시기였기 때문이다. 어머니는 직업을 소개해준다는 아주머니의 말을 양공주로 딸을 내놓으라는 것인줄 알고 펄쩍 뛰었으나 “목구멍이 포도청이었는지 어머니는 못 이기는 척 설득을 당”한다. 물론 ‘나’의 취직자리가 양공주는 아니었지만 결국 어머니가 딸의 취직을 수치스럽게 여김에도 불구하고 묵과했다는 점에서 ‘나’는 어머니가 자신을 생계 해결을 위한 하나의 노동 자원으로서는 이용하고 착취했다는 생각을 가지게 된다. 이러한 딸의 피해의식은 다른 박완서의 소설들에서 딸은 ‘양공주’로 어머니는 ‘포주’로 나타나는 원인이기도 한다. 『부끄러움을 가르칩니다』(1974)에서 어머니는 전쟁이 터지자 온 식구가 당장 굶어죽게 생겼다고 매우 불안해한다. 그러던 와중에 미군들이 마을에 들어오자 어머니는 딸에게 양공주가 될 것을 종용한다. 어머니는 어린 남동생들에게는 매우 자애로운 어머니 이면서 딸인 ‘나’에게는 냉정하기 짝이 없는데, 어머니는 자신과 어린 남동생들을 부양해야 할 책임을 ‘나’에게 지우면서 자신은 양공주가 되기에 너무 늙었으니 너라도 양공주가 되어 식구들을 먹여 살리라고 한다. 어머니의 요청을 거부하자 어머니는 ‘나’를 “독한 년”이라고 비난한다. 그리고 대신 ‘나’를 시골의 호농에게 시집을 보낸다.

그때 왜 그랬는지, TV로 내셔널지오그래픽을 보다가 오랫동안 궁금했던 것의 해답을 얻은 것처럼 느낀 적이 있는데 그것도 거기 정말 정답이 있어서라기보다는 줄곧 답을 구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거기서 보여준 건 새들이 짝을 구하는 방법이었다. 주로 수컷이 노래로, 몸짓으로, 깃털로, 암컷의 환심을 사려고 온갖 노력을 다한다는 건 다 아는 사실이니까 그저 그렇고, 가장 흥미 있었던 것은 자기가 지어놓은 집으로 암컷의 환심을 사려는 새였다. 그런 새가 있다는 건 처음 알았다. 수컷은 청청한 잎이 달린 단단한 가지를 물어다가 견고하고 네모난 집을 짓고, 드나들 수 있는 홍예문도 내고, 빨강고 노란 꽃가지를 물어다가 실내 장식까지 하는 것이었다 암

놈은 요기조기 집 구경을 하고 나서 그중 가장 마음에 드는 집을 골라잡기만 하면 짝짓기가 이루어진다.

그래, 그때 난 새대가리였구나.

그게 내가 벼락 치듯 깨달은 정답이었다. 나는 작아도 좋으니 하자 없이 탄탄하고 안전한 집에서 알콩달콩 새끼 까고 살고 싶었다. 그 남자네 집도, 우리 집도 사방이 비 새고 금 가고 조만간 무너져 내릴 집이었다. 도저히 새끼를 낳 수 없는 만신창이의 집, 아직 태어나지 않은 내 새끼를 위해 그런 집은 버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³⁰⁾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나’에게 억척스럽게 일할 것을 요구하면서 ‘나’를 수치심의 늪에 빠져들게 만드는 가난의 지대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것인가. ‘나’는 여성인 ‘나’에게 부당하게 주어진 밥벌이의 무거운 책임으로부터 도망가기 위해 결혼을 선택한다. 결혼은 여성으로 하여금 경제적 보호를 기대할 수 있는 ‘가장’을 마련해주기 때문이다. 사회 규범 상 자신의 식구를 끝까지 부양할 책임이 부여되는 가장을 마련하는 것이 ‘나’에게 평생 안정적으로 경제적 지원을 보장받을 수 있는 길로 여겨지는 것이다. 따라서 『그 남자네 집』(2004)에서 ‘나’는 경제 관념이 전혀 없는 로맨티스트 애인 ‘그 남자’도 버리고 자신이 부양해야 하는 ‘우리 집’도 버리기 위해 결혼을 선택한다. “그 남자네 집도, 우리 집도 사방이 비 새고 금 가고 조만간 무너져 내릴 집”이었기 때문이다. ‘나’는 전쟁으로 인해 강해진 자기보전의 욕구를 가졌던 자신을 “그때 난 새대가리”였다고 말한다. 자신이 직접 외부의 모든 위험을 감당할 필요 없이 그 책임을 대신 저출 가부장을 찾으려 했기 때문이다. 이때 ‘나’에게 있어 외부의 모든 위험이란 경제적 위기를 의미한다. 박완서의 소설 세계에서 ‘집’으로 상징되는, 여성이 모든 경제적 위험으로부터 보호되므로 부양의 책임을

30) 위의 책, 99-100면.

질 필요가 없는 상태에 도달하기 위해 ‘나’는 안정되고 든든한 경제력을 갖춘 은행원 남성과 결혼하고 그의 아내로 살아간다.

‘안파노 오까아상’ 때문이 아니라 친정 문제로 싸움을 걸려도 역시 돈이 화두가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니까 싸우기도 전에 힘 먼저 빠졌다. 그 문제에 있어서는 남편은 나의 적수가 아니었다. 그건 참혹한 열패감이었다. ... 양식뿐 아니라 연탄도 여름에 1년 쓸 것을 한목으로 들여놨고, 아직 개량하지 않은 군불아궁이에 지필 장작도 청량리 나무장에서 원목으로 사다가 사람을 사 패서 마루 밑에 차곡차곡 쟁여놓고 있었다. 제때 메주 쑤고, 고추 사 말리고, 새우젓 들이고, 김장 담그고... 철철이 돌아오는 큰돈 쓸 일이 다 그의 주머니에서 따로 나왔고, 그런 일을 행사할 때 그는 권위 있고 당당해 보였다. 시집에 확고하게 자리 잡은 그런 안정감도 내가 시집을 부자라고 착각하는 데 한몫을 했을 것이다. 그러나 변화를 꿈꿀 수 없는 안정감이야말로 나에게서는 족쇄였다. 남편을 갈구하고 따져서 어떡하든지 허점을 찾아내고 싶은 욕망은 족쇄를 느슨하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의 모색인지도 몰랐다.³¹⁾

‘나’는 가난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자력으로 경제 생활을 할 것을 포기하고 가부장제 속으로 편입하기를 ‘선택’한다. 그런데 ‘나’는 결혼을 통해 이러한 짐으로부터 벗어나 자기보전만을 추구한 것이 과연 ‘옳은’ 일이었는지 의심한다. 『부끄러움을 가르칩니다』(1974)의 ‘나’가 “그렇다고 내가 시집가는 게 양갈보 짓보다 더 도덕적이라고 판단했던 것은 아니다.”³²⁾라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결혼을 선택한 자신의 도덕성에 대한 회의는 어머니를 부양하는 책임 혹은 가족을 부양하는 힘겨움에서 도피하여 자기 한 몸의 보전을 추구하려 했

31) 위의 책, 154-155면.

32) 박완서, 『부끄러움을 가르칩니다』, 『부끄러움을 가르칩니다』, 문학동네, 2013, 317면.

다는 죄책감과 성을 자원으로 하여 경제력을 획득했다는 수치심으로 나타난다. 『어떤 나들이』(1971), 『지렁이 울음소리』(1973), 『닭은 방들』(1974) 등과 같이 중산층 여성의 현실을 비판적으로 그리고 있다고 얘기되는 단편들은 후자의 내적 갈등을 잘 보여준다.

일년에 한두 번쯤 상경하는 시골의 어머니가 그 썰쭉한 실
눈으로 나를 흘겨보며

“쫓쫓, 어떤 년은 저리도 사주팔자를 잘 타고났노, 시골년이
금시발복을 해도 분수가 있자. 서방하고 잠자리하는 것밖에 할
일이 없는데도 밥이 주러운가 의복이 주러운가..”

나는 이 소리가 미칠 듯이 징그러울 뿐 추호의 이의도 없다.
팔자가 좋다는 건 얼마나 구원이 없는 암담한 높이까?³³⁾

『어떤 나들이』(1971)에서 ‘나’는 홀어머니의 극성으로 중학교 졸업장까지 얻은 고학력자이나 정작 졸업장이 쓰일 일이 없다는 데 대한 자괴감과 자신을 교육시켜준 어머니에 대한 채무 의식에 시달리는 인물이다. 그러나 어머니는 딸을 시집 잘 보내기 위해 중학교 졸업장을 따내도록 했을 뿐이다. 자신의 사용가치가 결혼에 국한된다는 자괴감을 “서방하고 잠자리하는 것밖에 할 일이 없는데도 밥이 주러운가 의복이 주러운가”라고 말하는 시어머니의 말을 자학적으로 인정하도록 만든다. 남편이 벌어들여오는 돈으로 편하게 부양된다는 수치심은 섹스를 제공하는 대가로 부양받는다는 수치심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또한 섹스를 통해 부양의 대가를 제공한다는 수치심은 (가족들이) “나에게 아주 조금밖에 일을 주지 않는다”는 ‘나’의 말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힘들게 노동하지 않고도 먹고 살고 있다는 “무위와 나태”에 대한 수치심으로 연결된다. 자신을 비롯한 모든 여성은 섹슈얼리티만을 단 하나의 유용한 경제적 자원으로 가진 성매매 여

33) 박완서, 『어떤 나들이』, 위의 책, 40면.

성에 불과하다는 자기비하가 나타나는 것이다. 이로 인해 ‘나’는 전후의 궁핍을 극복하고 산업화의 수혜를 받아 부를 누리고 있으면서도 자력으로 경제 활동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 스스로를 여전히 가난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자신의 성을 교환함으로써 가난으로부터 빠져나왔다는 수치심은 딸의 ‘중산층 여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탱할 수 있게 해주는 핵심 요소가 된다. 자신의 성을 거래함으로써 경제적 안정을 얻어냈다는 것은 그만큼 자신의 성에 상품가치가 있음을 인정받은 셈이기도 하다. 따라서 딸은 성의 거래 자체에 수치심을 가지면서도 자신이 여성으로서의 성적 매력을 인정받았다고 여기기도 한다. 『주말농장』(1973), 『닭은 방들』(1974) 등에서처럼 자신의 몸을 거래하는 행위에 수치심을 느끼는지의 여부는 차치하고서 자신이 좁은 집에 갇혀 평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자괴감을 느끼는 여성들이 ‘아름다운’ 여성으로 나타나는 것은 이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여성은 결혼이라는 성을 거래하는 행위으로써만 비로소 완전한 경제적 안정을 얻을 수 있다는 작가의 인식은 경제적 안정을 얻지 못해 부단히 돈을 벌고자 노력하는 가난한 여성들을 언제든지 성을 거래할 준비가 되어있는 여성 즉 ‘화냥끼’ 있는 여성으로 등장시키도록 만들기도 한다. 이때 소설 속 중산층 여성들은 일하는 가난한 여성들을 연민 혹은 혐오의 시선에서 바라보면서 이 여성들에 비해 자신이 교양 있는 정숙한 여성이라는 계층적 우월감을 획득한다. 『흑과부』(1977)에서 이러한 면모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흑과부』(1977)에서 흑과부는 행상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빈민 여성으로 타고난 강인한 몸뚱이 하나로 억척스레 돈을 번다. 점잖은 중산층 동네에 사는 ‘나’를 비롯한 주민들은 가난한 흑과부를 동정하여 그에게 어떻게든 일을 주고자 한다. 하지만 알고 보니 그는 남편이 죽어가고 있음에도 약 한 첩 쓰지 않는 비정한 아내이며 잠실에 있는 아파트 로얄층을 살 정도로

치부한 여성이기도 하다. 소설은 집에서 살림만 하는 중산층 주부들과 비교했을 때 막노동꾼 남성처럼 억척스러운 외모를 가졌던 흑과 부가 사실 얼마나 아름다운 가슴을 숨기고 있던 여성이었는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마무리 된다. 남성처럼 보였던 것은 흑과부의 동정을 사기 위한 전략일 뿐 그가 잠실 아파트까지 살 수 있었던 원동력은 그 안에 숨겨진 강한 물질적/여성적 욕망에 있다고 보는 것이다.

한편 가난한 여성들에 대한 딸의 계층적 우월감 및 결혼을 선택한 자신에 대한 수치심은 박완서의 작가 생활 거의 마지막에 쓰인 『그 남자의 집』(2004)에 이르러서 한결 누그러진 양상을 보인다. 『그 남자의 집』(2004)의 서사는 ‘나’가 결혼이라는 자신의 선택이 도덕적으로 옳지는 못했는지라도 최선의 선택이었음을 양공주 춘희의 삶과 자신의 삶을 비교하면서 스스로를 설득하기 위해 구성된다. ‘나’는 안정된 직장을 가진 은행원과 결혼하면서 미군 부대를 그만두게 되자 자기 자리를 가난한 집 첫째 딸인 춘희에게 넘겨준다. 춘희는 가난한 집의 일곱 남매 중 장녀로 여성적 희생정신을 발휘하여 자신의 친정 식구들을 ‘책임’지려고 한다. 이후 결혼을 선택한 ‘나’와 일을 선택한 춘희, 미군부대에서 일했던 경력이 있는 이 두 여성의 삶은 극과 극으로 달라진다. 결혼한 ‘나’는 중산층 가정이라는 안전한 울타리 안에서 아이들을 낳고 키우는 반면 춘희는 오래지 않아 양공주로 전략한다. 똑같이 미군 부대에 취직하여 친정의 생활을 책임지려 한 미혼의 가난한 여성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결혼 덕에 취직의 필요로부터 빠져나와 한 남자에게 경제적으로 보호됨으로써 대한민국의 울타리 안에서 평안한 삶을 영위하지만 춘희는 결혼에 의해 경제적으로 보호받지 못했던 것처럼 대한민국으로부터도 보호받지 못하고 결국 밖으로 내쳐진 것이다. 여기서 ‘나’는 화려하고 세련된 양공주 춘희를 물질에 대한 욕심이 지나치게 많다거나 그 환경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할 만큼 우매하다고 비난하지 않는다. 대신 ‘나’는 춘희의 불

행의 이유가 국가가 가난했기 때문이라고 한국사 연구자인 춘희의 조카의 말을 빌려 이야기 한다. ‘나’는 당시 처지에 있어 춘희와 ‘나’가 종이 한 장의 차이만큼도 나지 않았다는 것을 받아들임으로써 가난한 여성에 대한 혐오 및 우월감을 누그러뜨리는 것이다.

5. 결론

본고는 박완서의 전쟁 체험 소설들을 바탕으로 하여 사회적 변동에 의해 여성성이 구성되는 일례를 살펴봄과 동시에 한 여성 개인이 여성 의식을 형성해가는 과정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한국전쟁에 의한 가장의 죽음으로 많은 여성들은 가족의 생계를 실질적으로 책임져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사회 규범 상 여성은 경제적으로 무능력한 존재로 인식되었지만 실제 생활에서 그들은 절대 경제적으로 무능력해서는 안 되었다. 이들은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억척스럽게 해나가는 생활력 강한 여성이 되었으며, 그들의 생활력은 가부장적 가족을 지탱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점에서 가족이기주의적인 성격을 갖게 된다.

박완서의 여성 의식은 여성에 대한 규범상의 기대와 실제의 기대가 어긋나는 위와 같은 상황을 배경으로 형성된다. 박완서는 ‘자율적 개인’이라는 자신의 도덕적 기준을 바탕으로 자신이 처한 상황을 해석하며 이 해석에 따라 여성 의식을 만들어간다. 이때 박완서의 여성 의식은 가난을 대타향으로 설정함으로써 만들어진다. 한국전쟁에 의해 초래된 가난을 겪으면서, 자율적 개인이고자 하는 자신이 ‘배고픔’과 같은 물질적 욕구에 구속되는 ‘수모’를 겪는다. 따라서 가난은 수치심을 유발하는 상황으로 인식되기 시작한다. 그런데 박완서에게 있어 이 수치심은 여성이라는 성별을 갖는다. 당시 가장을

있는 가난한 여성들이 생계를 위해 억척스레 일을 하는 모습 즉 물질적 필요를 충족시키는 데 온 힘을 집중하는 모습에서 수치심을 느끼는 것이다.

마사 너스바움의 『혐오와 수치심』에서 얘기하는 바와 같이 수치심은 개인으로 하여금 좀 더 윤리적으로 완전한 존재가 되도록 스스로를 채찍질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도 하나, 자신의 수치심을 자극하는 불완전한 타인을 혐오하게 만드는 기제가 되기도 한다.³⁴⁾ 박완서에게 있어 이러한 '불완전한 타인'은 바로 가난한 여성들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가난한 여성들을 혐오함으로써 여성으로서의 자신의 정체성을 방어적으로 구축하고자 했다.

본고는 박완서의 여성으로서의 자기 성찰의 구도가 방향을 잘못 잡은 것은 일차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는다는 불가능한 완전함을 도덕적 이상으로 추구한 박완서 개인에게 그 책임이 있다고 할 수도 있겠으나,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 경제적 위기 상황 때마다 자국 국민의 계층 상 가장 하위에 있는 여성들을 어머니의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혹은 가족을 위한 희생이라는 이름으로 쉽게 그 노동력을 착취해왔던 한국 특유의 비열하다고까지 평가할 수 있는 경제 구조, 그 구조를 만들어낸 식민지적 한국 남성 카르텔에 물어야 할 것이라고 본다. 본고는 박완서의 소설을 통해 이처럼 불공평하게 젠더화된 식민지적 경제 구조 하에서 스스로를 자율적 개인으로 구축하려고 하는 여성이 있을 때, 자신의 성별 조건이 그 여성에게 있어 장애물로 여겨지는 한 방식을 박완서에게서 발견할 수 있다고 보았다. 특히 박완서가 장애물로 여겼던 여성이라는 성별 조건이 한국의 문화 및 사회경제 상황과 굉장히 밀접하게 맞물려 파악되고 있다는 점에서 박완서의 여성 의식을 한국의 역사적 산물로 우선적으로 꼽아볼 수 있을 것이다.

34) 마사 너스바움, 조계원 옮김, 『혐오와 수치심』, 민음사, 2015 참조.

■ 참고문헌 ■

1. 기본자료

- 박완서, 『부끄러움을 가르칩니다』, 문학동네, 2013.
박완서, 『배반의 여름』, 문학동네, 2013.
박완서, 『그 남자네 집』, 세계사, 2012.
박완서, 『그 산이 정말 거기 있었을까』, 세계사, 2012.
박완서,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 세계사, 2012.
박완서, 『나무』, 세계사, 2012.

2. 논문

- 권명아, 「박완서 문학 연구 - 억척 모성의 이중성과 딸의 세계의 의미를 중심으로」, 『작가세계』 제23호, 1994.
_____, 「박완서 : 자기상실의 ‘근대사’와 여성들의 자기찾기」, 『역사비평』 제45호, 1998.
김윤정, 「박완서 소설의 젠더 의식 연구: 수행성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2.
김은하, 「애증 속의 공생, 우울증적 모녀관계」, 『여성과사회』 제15호, 2004.
송은영, 「‘문밖의식’으로 바라본 도시화-박완서 문학과 서울」, 『여성문학연구』 제25호, 2011.
신셋별, 「박완서 소설에 나타난 ‘먹는 인간’의 의미: 초기 장편소설을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5.
_____, 「박완서 소설에 나타난 ‘먹는 인간’의 의미 - 초기 장편소설을 중심으로」, 『상허학보』 제45집, 2015.
신수정, 「박완서 소설과 전지 여성 가장의 미군 PX 경험」, 『인문과학연구논총』 제37권 2호, 2016.
안남연, 「박완서 소설의 여성성」, 『한국문예비평연구』 제2호, 1998.
오자은, 「1980년대 박완서 단편 소설에 나타난 중산층의 존재방식과 윤리」, 『민족문학사연구』 제50호, 2012.
이선미, 「세계화와 탈냉전에 대응하는 소설의 형식-기억으로 발언하기-1990년

- 대 박완서 자전소설의 의미 연구, 『상허학보』 제12호, 2004.
- 이선미, 「박완서 소설과 비평-공감과 해석의 논리」, 『여성문학연구』 제25호, 2011.
- 이인숙, 「박완서 단편에 나타난 여성의 ‘성’」, 『국제어문』 제22호, 2000.
- 이정숙, 「1970년대 한국 소설에 나타난 가난의 정동화」,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4.
- 이정희, 「오정희·박완서 소설의 근대성과 젠더 의식 비교 연구」, 경희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1.
- 이태동, 「여성작가 소설에 나타난 여성성 탐구-박경리, 박완서 그리고 오정희의 경우」, 『한국문학연구』 제19호, 1997.
- 차미령, 「생존과 수치」, 『한국현대문학연구』 제47호, 2015.
- 하응백, 「모성, 그 생명과 평화」, 박완서, 『배반의 여름』, 문학동네, 1999.
- 한경희, 「자본주의를 비판하며 자본주의와 교섭하기」, 『페미니즘연구』 제16권 제2호, 2016.

3. 저서

- 심영희·정진선·윤정로 외, 『모성의 담론과 현실』, 나남출판, 1999.
- 윤택림, 『한국의모성』, 지식마당, 2001.
- 이재경·유철인·나성은 외, 『조국 근대화의 젠더정치』, 아르케, 2015.
- 정진성·안진 외, 『한국현대여성사』, 한울아카데미, 2004.
- 주디스 버틀러, 조형준 옮김, 『젠더 트러블』, 문학동네, 2012.
- 마사 너스바움, 조계원 옮김, 『혐오와 수치심』, 민음사, 2015.

<Abstract>

Women’s Consciousness produced by ‘War Mortality’

Han, Kyung-Hee

As a part of genealogical feminist research, this paper attempts to raise the question of how femininity has been structured in the distance from the existing discussion of femininity, centered on the existence of essential femininity. For this purpose, I will focus on Park Wan - seo's novels of war experience, which illustrate how femininity is constructed in the contemporary context.

The daughter of Park Wan - seo's war experience novels suffers from the fact that the family collapses due to the war, and hunger must be solved by oneself. Daughters who feel frightened for the first time about hunger go to economic activities. They feel shame about the fact that they are succumbing to hunger and going to economic activities, that is, they are dependent on substances. This shame makes them feel an immoral person with a strong selfish desire for matter. It also makes them feel shame and disgust about the “war maternity,” which means that if I lose my impersonation as a war and live a family, I will feel the feeling of disgust and hatred.

Daughters want to escape from the living environment that encourages them to seek food. To this end, daughters marry a man who can save food for him, that is, an economically powerful man.



With this choice, the daughters get out of the shame of poverty and have another moral shame that they gain wealth by using the sex. The shame at this time forms the nucleus of the identity of the daughters' middle-class women. It is to gain a hierarchical superiority by considering poor women who have not yet achieved economic stability as women who have not been traded or have failed to trade.

Key words: Wanseo Park, femininity, shame, feministic genealogy, middle class

투 고 일 : 2017년 8월 5일

심 사 일 : 2017년 8월 7일-9월 8일

게재확정일 : 2017년 9월 9일

수정마감일 : 2017년 9월 18일